

#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제안

###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핸드폰 과의존, 우리 사회의 문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 본질 회복하는 문화 조성해야" 부모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등 3대 실천 원칙 제시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가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프리'는 스마트폰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를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날 천 소장은 "핸드폰 과의존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북의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해 '전북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이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북도민들도 아이

들의 스마트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문화 조성, 중학교까지 자녀에게 스마트폰 구매 제한, 부모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등 3대 실천 원칙을 제시했다.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은 "스마트폰 프리는 단순히 기기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스마트폰 프리는 아이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활발히 움직이며, 더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유아 정서 심리 지원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아기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심리 발달을 위해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관으로 찾아가는 학급 집단 프로그램과 개별 유아 맞춤형 치료 지원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학급 집단 프로그램인 '마음성장교실'은 △유아 스킴리닝 검사 △교사 상담 및 피드백 △학급단위 집단 상담 및 피드백 프로그램(6회기) △학부모 집단상담 등이다.

올해는 160개 학급 총 2,18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마음성장교실'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급 단위 집단상담 이후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 상담가가 판단한 80여 명의 유아에게는 집중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개별 치료 지원이 필요한 120명의 유아에게는 '마음동행 유아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기관과 연결한 치료를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 전면 시행 대비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함께 모여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협의회에서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방향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위원회 구성(안) △2026년 예산 운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직업치료 인재 양성 대한직업치료사협회와 협약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25일 종합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대한직업치료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기전대학은 국내 직업치료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대한직업치료사협회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재활치료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제2회 전북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안호영·안호영·신영대·윤준병·이성윤·박희승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어린시절 경험 못한 운동회 이제서야... 감회 새로워"

### 전북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추억의 가을운동회' ... 성인학습자 등 600여명 참석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억을 쌓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5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및 교직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억의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운동회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평생교육시설 간 소통 및 교류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추억의 가을운동회'는 학교별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회식, 모범학생 교육감표창, 추억의 운동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큰공굴리기, 고리던지기, 고무신 양궁 등 추억의 운동회 종목에서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청춘의 열정을 불태웠다.

또한 학교별 장기자랑, 강강술래 등 대동놀리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초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습자는 "어린시절 경험해 보지 못한



2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도내 5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및 교직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억의 가을운동회'가 열린 가운데,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이 큰공을 굴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운동회를 이제와서 경험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오늘의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추억

의 가을운동회는 평생 배움의 길을 걷는 만학도들에게 어린 적 추억을 되살리고 공동체적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교육소외계층이 삶의 자란감을 찾고, 배움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피지컬AI 핵심기술 인재 양성 · 첨단산업 발전 '맞손'

### 전북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안오봉)는 지난 24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2025년 정부 공모사업인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피지컬AI는 물리적 동작이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으로, 국가 전략사업



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북대는 기획부터 실증, 인재 양성,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대한민국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국가 주도의 '소버린AI(Sovereign

AI)'와 같은 자국형 인공지능 개발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견인해온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개발, 세미나·포럼·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피지컬AI 사업은 생성형 AI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라며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협력이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미생물·전기 융합 친환경 정화기술로 과학적 난제 해결

### 오병택 교수팀, 난분해성 화학물질 제거 신기술 개발 처리 후 독성 저감까지 입증... 국제학술지에 성과 발표



오병택 교수



H.Mohan 연구원

전북대학교 오병택 교수팀(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공학 전공)이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오병택 교수와 H. Mohan 박사후연구원(제1저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매립지에서 분리한 *Bacillus subtilis*(ILS-04) 균주를 이용해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를 제거하는 바이오-전기분해(bio-electrodegradation)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IF 12.2, 상위 3.2%)'에 게재됐다.

DBP는 플라스틱 가소제 등 각종 산업 제품에 널리 쓰이지만,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오래 남고 인체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지금까지는 미생물 분해(biodegradation)나 전기화학적 분해(electrodegradation) 방법이 시도됐

으나 처리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미생물의 대사 능력의 대사 능력과 전기화학

적 분해 과정을 결합한 바이오-전기분해 융합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DBP 농도를 98.57%까지 제거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기존 방법을 크게 뛰어넘는 효율을 입증했다. 실험 과정에서 미생물의 단백질 생성량과 에스터라아제·탈수소효소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해 분해가 더욱 활발히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HPLC-MS/MS)을 통해 DBP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최종 대사산물로 전환된다는 점도 입증했다.

오병택 교수는 "이번 연구는 미생물과 전기화학적 시스템을 융합해 난분해성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경 독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실용적 처리 기술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청렴추진제와 함께하는 소통의 날

### 전북교육청, '고맙day'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2층 강당에서 청렴추진제와 함께하는 소통의 날 '고맙day'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청렴추진제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문제점 도출, 개선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청렴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14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 청렴추진제 140여 명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과 조직문화 개선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가운초청센터 대표가 '다름이 장점



이 되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어 조직문화 코칭전문가와 함께 조직문화 네트워킹 명화교과, 조직문화 개선 Q&A, 청렴화 조직문화 아이디어 플래너 활동, 14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 조직문화 사례 공유시간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 "지역 문제, 기회로 활용하자"

### 전주대, 양경준 크립톤 대표이사 초청 특강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24일 저녁 7시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 공간'에서 본교 로컬창업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크립톤 양경준 대표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 대표는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 기업인 (주)크립톤을 이끌며 로컬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역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 모델 발굴에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전주대와 함께 로컬창업 동아리이자 'B로컬스타트업빌리지' 입주팀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며 예비 로컬창업자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로컬콘텐츠중점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강에서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가 정신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차이를 넘어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확장시키는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로컬과 지역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지역의 문화·공간 등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브랜드화할 수 있는 자산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 된 자원을 설명했다.

김상진 단장은 "로컬창업 기업 성장에 대한 많은 경험을 지닌 양경준 대표의 특강은 로컬창업 동아리 학생들에게 많은 자극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특강이 로컬창업자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